미국과 중국의 대 아시아 경제 전략:
투자 원조 연계를 중심으로

이 승 주
중앙대학교

2017년 1월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EAI 연구보고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7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 아시아 경제 전략"
ISBN 979-11-87558-28-6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국과 중국의 대 아시아 경제 전략:
투자 원조 연계를 중심으로

이 승 주
중앙대학교

I. 서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주로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를 둘러싼 경쟁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경제 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증대된 경제력에 기반한 영향을 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han 2014). 우선, 미중 양국은 경제 관계에서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칭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양자 차원에서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바마 정부가 재균형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서 나타나듯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조하였듯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왔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자국에 유리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관계의 조정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wain, et al. 2015).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Blackwell and Harris 2016). 따라서 향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의 성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 저변에서 작용하는 미중 양국의 상호 경제 관계뿐 아니라, 미중 양국이 아시아 또는 지구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역과 그를 기반으로 한 무역아키텍처의 형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향후 경쟁의 무대는 투자와 원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설계로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대일로정책과 그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추진하고, 미국이 일

본 등 주요 우방국들에 대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도록 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아키텍처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및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추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아키텍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경제 관계의 확대·심화를 발판으로 지역 질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를 위해 벌이는 경쟁의 초점은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맞추어져 있었다. 중국이 과거에 비해 주변국 외교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주변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Hines 2015). 2013년 일본 아베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했을 때, 중국이 '지역경제일체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이승주 2013). 그러나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키텍처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다.

둘째,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투자와 원조를 연계하는 시도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최근까지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의 건설은 주로 무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투자와 원조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생산과 무역을 넘어 투자와 원조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을 다차원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순수한 대외원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업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 사업도 아니다(왕이웨이 2016). 일대일로의 본질은 중국이 투자와 대외원조를 결합하여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반복해서 밝히고 있듯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다자개발은행들에 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투자와 원조의 성격을 전략적으로 가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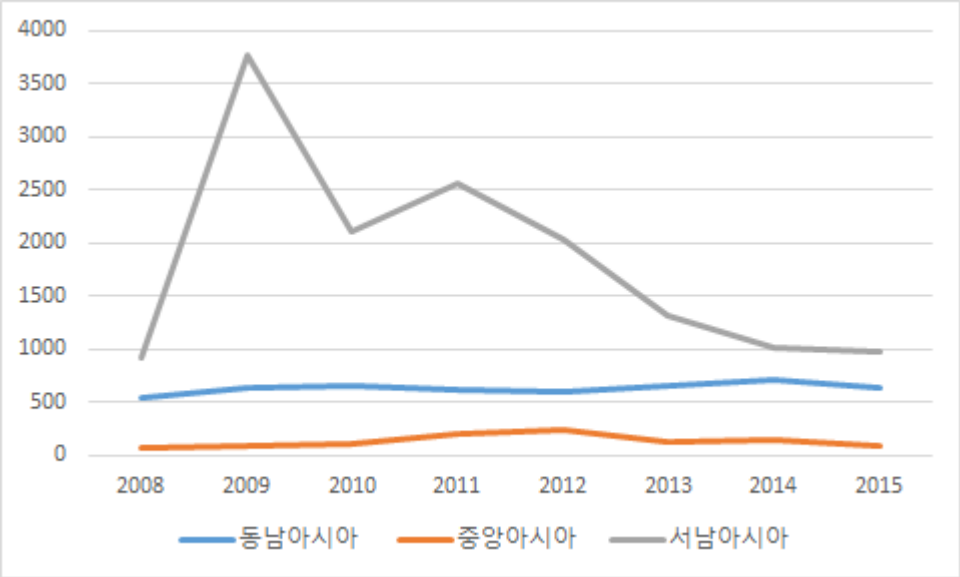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투자와 원조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략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원조와 투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형성하고 있는 경제 관계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투자와 연계의 고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원조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공조를 실행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투자와 원조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미중 관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미국과 중국의 대외원조와 투자

1. 미국의 대외 원조와 투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외원조는 세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미국의 원조가 주로 최빈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요한 국가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2009년 약 37.6억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9.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가 2008년에서 7.4억 달러에서 2009년 36.1억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1] 미국의 대 아시아 대외원조, 2008~2015(집행 예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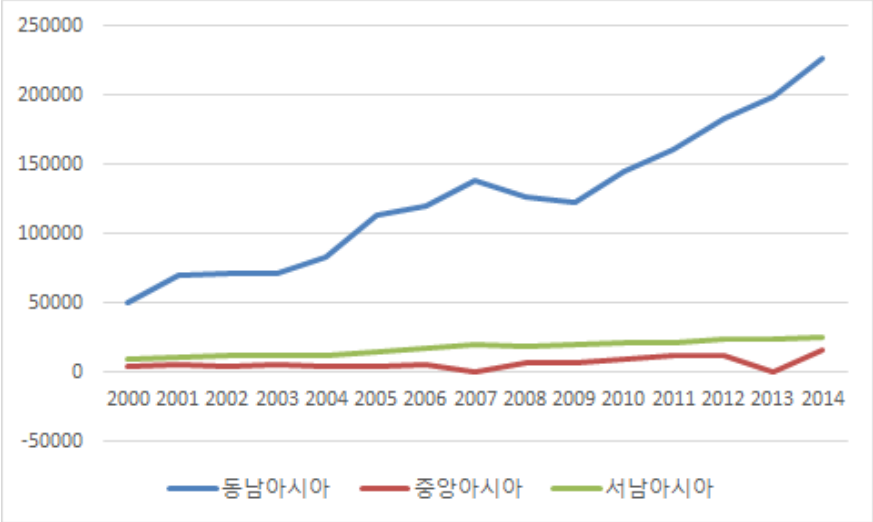
출처: U.S. Foreign Assistance Data, http://beta.foreignassistance.gov.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원조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2008년 5.3억 달러에서 2014년 7.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다시 6.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와 원조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미국 원조정책의 특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외원조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최대 수원국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리핀이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인데,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2009년 1.23억 달러에서 2013년 1.97억 달러로 약 62%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등 갈등의 수위가 고조된 데 따른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군부의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미얀마에 대한 대외원조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3,800만 달러에서 2014년 약 1억 달러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절대 규모 면에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소규모이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미국의 원조가 211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2015년 1,000만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외원조에는 군사 원조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외원조의 감소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여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주로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2010년 이후 심화된 경제 관계를 전략적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과 달리, 특히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동북아 제외), 2000~2014



출처: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bea.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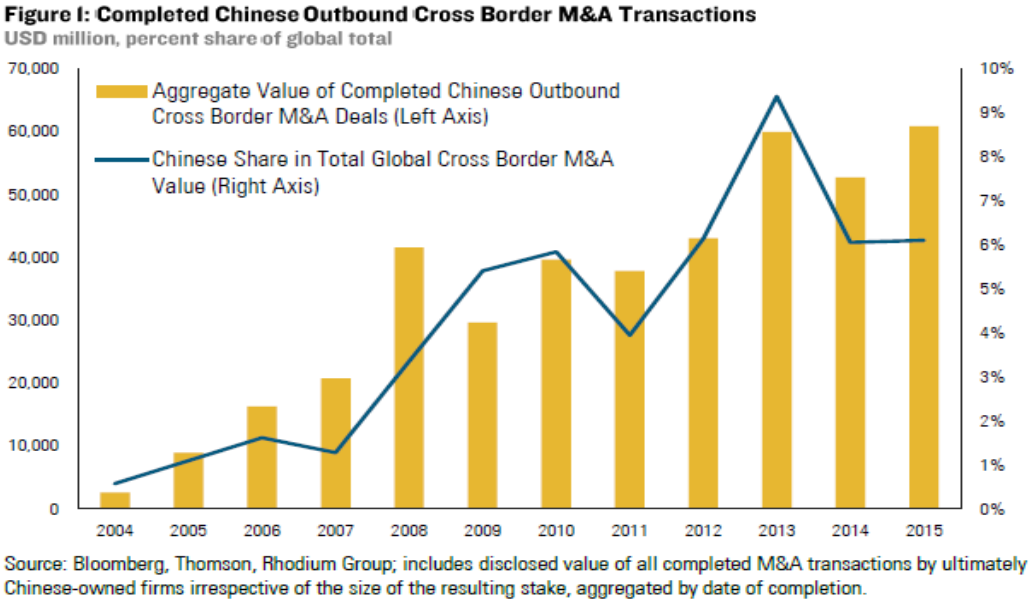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대 아시아(동북아시아 제외) 투자는 주로 최빈국과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들에 제공되는 대외원조와는 달리, 미국 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이 있다([그림 2] 참조). 미국의 대외 투자가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투자 때문이다. 미국의 대 동남아시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약 505억 달러에서 2014년 2,26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2014년 기준 약 1,70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기타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의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0년대 이후 완만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모는 2007년과 2013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중국의 대외 투자와 원조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약 10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16/04/22). 중국 세계화 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3676억 달러(약 4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투자가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과거 세계 최대 투자 유치국에서 최대의 투자국으로 그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외로 투사하고, 더 나아가 외교안보적 영향력의 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정부가 2010년 이후 민간기업의 대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건수와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민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013년에 비해 무려 295%가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투자 규모의 약 69%에 해당한다.

[그림 3]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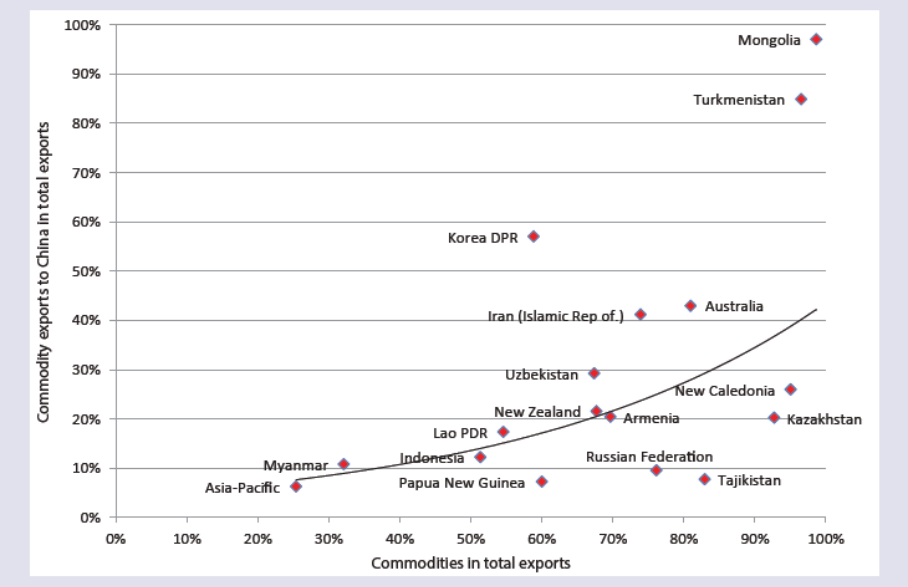


출처: Hanemann and Gao (2016)에서 재인용.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 체결된 인수합병 거래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규모는 2014년에 비해 16% 상승한 약 610억 달러, 인수합병 건수를 기준으로는 397건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중국은 그동안 주로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투자 비중이 컸으나, 점차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Hinemann and Gao 2016). 주목할 것은 중국의 투자 대상국 가운데 선진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5년 유럽, 미국, 호주 등이 중국 인수합병 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의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대일로정책이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신흥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인수합병 현황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2013년까지 에너지와 자원 분야의 인수합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금융, 첨단산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분야의 인수합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이 무역뿐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도 경제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 초래된 체제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다수 국가들에서 중국의 수요 변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 비중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몽고, 투르크메니스탄, 호주, 이란, 북한,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등의 대 중국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무역 중심의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란과 라오스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40퍼센트를 상회하며,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30% 수준, 필리핀,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는 20% 수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ESCAP 2015: XXII).

[그림 4]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 비교



출처: ESCAP 2015: XXII

중국의 대외원조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외원조백서(White Paper 2014)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는 2010년 21억 8천만 달러, 2011년 25억 5천만 달러, 2012년 27억 2천만 달러로 3년 간 약 24% 증가했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4). 그러나 중국은 대외원조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서구 공여국들의 원조 규모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중국 대외원조백서의 자료는 상무성과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양허성 원조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다른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원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대외원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Kitano and Harada 2014). 상무부가 관리하는 증여(grant)와 무이자 차관;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증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장학금; 양허성 차관에 대한 이자 지원; 양자원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순지출과 총지출; 44개 부서가 지출하는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과 같은 다자 원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중국 대외원조의 규모는 2013년 71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대외원조의 증가율 역시 약 24%에 달한다(Kitano and Harada 2014). 이 경우 중국 대외원조의 규모는 2001년 세계 16위에서 2012년 세계 6위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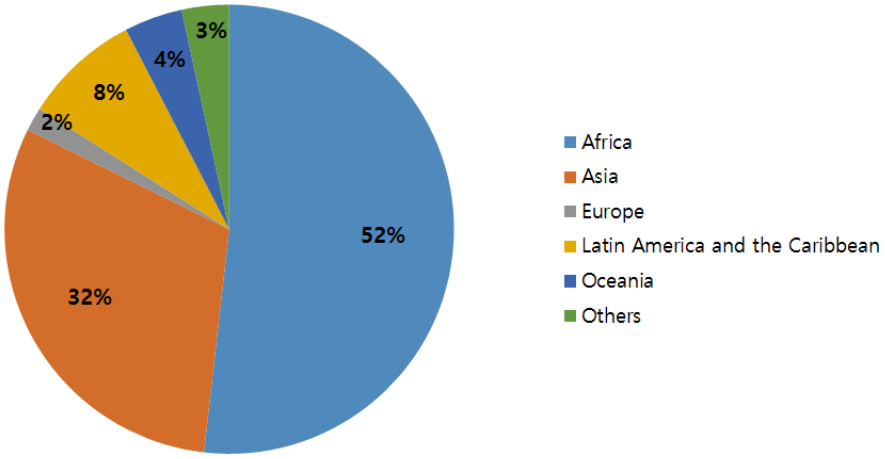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대외원조는 원조와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foreign aid and government-sponsored investment activities: FAGIA)를 포괄해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Lum 2009).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이 대외원조를 제공한 93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약속한(pledged) 대외원조의 규모는 2009년 약 1248억 달러, 2010년 1686억 달러, 2011년 189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조 규모는 201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하는 규모이다(Wolf, et al. 2013).

중국 대외원조의 규모는 이처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추정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대외원조백서뿐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외원조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대외원조의 전략적 성격 또한 강화되고 있다. 중국 대외원조의 전략적 성격은 단지 원조 규모뿐 아니라, 원조의 지리적 범위, 성격, 패러다임에서 발견된다. 첫째, 대외원조의 지리적 범위면에서 중국은 전체 원조의 52%를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이는 동아시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일본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중국이 대외원조를 통해 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적 영향력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기존 선진 공여국들과 달리 대외원조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암묵적으로 자국의 정치경제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을 통해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외원조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원과 변화의 수단, 평등과 호혜, 경제 발전, 낮은 거래비용(절차의 간소화 및 사전 연구 비용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 중국 대외원조의 지역 분포



출처: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4).

셋째, 2014년 발간된 대외원조백서에서는 지역 협력 메커니즘과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백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점이다. 구제적으로 2014 대외원조백서는 지구화되고 있는 쟁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양자적 접근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4). 이는 중국 정부가 대외원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변화를 예상하게 한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개발협력 거버넌스에서 확립된 규범과 가치와 상이한 원조 정책을 주로 양자 차원에서 제공해왔는데, 여기에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기존 선진 공여국 중심의 개발협력 거버넌스보다는 자국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민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협력의 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과 중국-아세안 정상회의(China-ASEAN Summit) 등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에 기반한 전통적 개발협력과 차별화된 남남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중국 정부가 대외원조를 매개로 지역 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대외원조의 전략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투자 · 원조 연계의 고리로서 일대일로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신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제의한 이후,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s 2015). 중국이 일대일로정책을 추진하는 표면적 동기는 아시아 개도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프라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부족한 이른바 '인프라 갭'(infrastructure gap)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개발기관들의 여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Asia Development Bank and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정책을 펼치는 실질적인 동기는 공급 과잉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감소로 상징되는 '신상태'(new normal)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해외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해외 부문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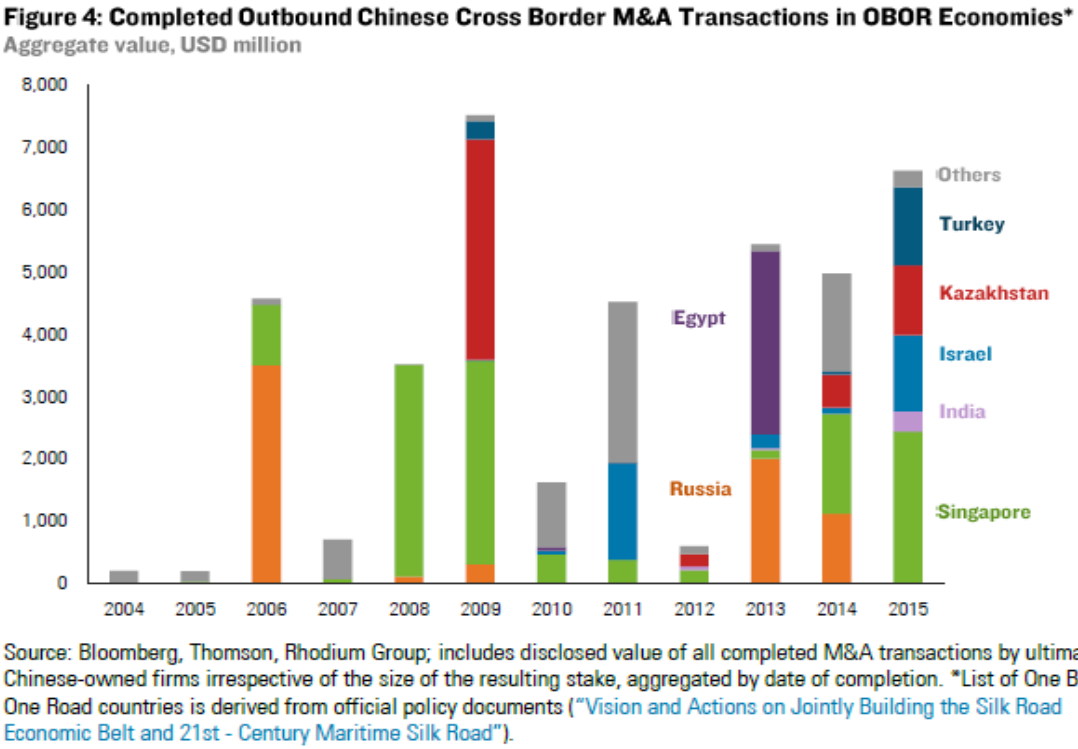
반면,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일대일로의 의미는 '전방위적 개방의 기회,' '주변외교의 기회,' '지역협력의 기회,' '전세계 발전의 기회'로 요약된다(왕이웨이 2016). 일대일로는 이 가운데 특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이른바 '대주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지역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페이생 2016, 52). 중국 정부는 아시아의 역내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그 중심에 위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대외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생산 네트워크를 모두 아우르는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개선, 위안화 국제화,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일대일로 관련 계획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여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Commerce 2015).

일대일로는 중국이 투자와 원조를 본격적으로 연계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의 생산과 무역 중심이었던 중국의 대외경제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일대일로를 실행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점차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에 따라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1억~10억 달러 규모 407개, 407개, 10억~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121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기존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광산, 교통운수 및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던 반면, 일대일로를 통한 투자는 인프라,

정보통신 등의 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 일대일로 대상 지역에 대한 인수합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주로 선진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주력했던 중국 기업들이 2015년 일대일로 대상 지역 가운데 터키,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일대일로 대상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인수합병 투자



출처: Hanemann and Gao (2016).

일대일로의 추진 단계에서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대해 상당히 차별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조와 투자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차별성은 더욱 두르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는 현재 외견상 중국이 일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가 주요 대상인 일로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무역의 95%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경유하여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중국의 주요 경제 협력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2018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20여 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예산 가운데 약 230억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한 있다. 2014년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 간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1] 중국망 http://korean.china.org.cn/2015-11/10/content_37023460.htm) 참조

5,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Zhao 2016).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국내 정세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뿐 아니라, 인구 구조, 천연자원, 전략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인프라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Mooney 2016),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단기적으로는 일대일로의 일차적인 초점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로는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어 다양한 방식의 민관협력모델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로 사업은 민간 부문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남중국해 분쟁 사례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해상실크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기존의 역내 해양 강국들의 견제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중국이 일대일로를 계기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자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차별화된 위협 인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Chen and Yang 2013).

반면, 현실적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의 동인이 크지 않고 지역 정세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의 비용 대비 효율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물류의 상당 부분이 실제 내몽고를 경유하는 러시아 횡단철도를 통해 소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육상 실크로드는 지역 격차, 소수민족문제 등 중국 국내정치적 함의와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대일로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 사업은 원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약 45%가 경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원조를 통해 중대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외원조와 일대일로의 집행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2016년 15억~20억 달러, 2017년 30~50억 달러, 2018년 100억 달러 등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원조의 상대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연계될 수 있는 것도 투자와 원조의 고리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Xi Jinping 2014). 여기에는 인프라 건설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계산이 작용하였다(김유리 2016). 2014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건설 수요는 약 3.9조 달러에 달하여 세계 건설 수요의 약 45%를 차지하였고, 이후에도 2018년 4.8조 달러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일대일로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중국 외부의 인프라 사

업을 위한 자금 조달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출범 과정에서 ADB와 세계은행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이 빠르게 증가하는 역내 인프라 수요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역내 국가들의 필요에 충실히 대응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리췬 총재가 "중국이 일대일로의 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사실상 일대일로 추진 지역에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Wall Street Journal* June/22/2016).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2016년 6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사회 및 제1차 연차 총회에서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타지키스탄 도로 개선 사업, 방글라데시 전력 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사업 등 모두 4건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5억 9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하였다(이현태 · 김준영 2016). 이 가운데 3건이 중앙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인도네시아 사업 한 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특히 방글라데시 사업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협조 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과 달리,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방글라데시 정부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新华网 2016/6/25). 이처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이 투자와 원조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으로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IV. 미국과 일본의 대응

1. 경제적 및 전략적 관여의 차별화

원조와 투자 면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지역아키텍처의 재설계 등 전략적 이익을 투사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아시아 투자 증가는 미국/일본과 중국의 지역아키텍처 경쟁을 촉진하는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1년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투자와 원조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본격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차별성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견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국가별로 매우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반면, 일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이재현 2016). 이는 중국과 일본 및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형성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가 독자적인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경학(geo-economic)적 경쟁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Blackwell and Harris 2016).

2. 규범 경쟁과 미일 정책 공조의 강화

한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설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규범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출범 과정에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등이 오랜 기간 확립해 온 모범 관행(best practices)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반복적으로 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환경, 인권, 사회안전 등과 관련하여 실행해 온 높은 수준의 기준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투명성, 거버넌스, 반부패,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준수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확립된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의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오바마 정부가 원조 및 차관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Kuo and Tang 2015), 환경 보호와 노동권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정에 포함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제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설 과정에서 자국은 물론 주요 우방국들에게 사실상 가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시각에 동조하여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가 강화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었다. 아베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기구들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프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며,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공통의 시각을 견지하였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차별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Japan Times* July/01/2015). 또한 일본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단기적으로는 기존 다자개발은행 체제와 국제경제질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宗永健作 2015).

3. 일본의 새로운 대안 제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공세적으로 추진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수세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의 발표를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MOFA, MOF, METI, and MLIT 2015).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공동 발표한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로의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11월 아세안비즈니스투자정상회의(ASEAN Business & Investment Summit)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아시아 국가들에게 1,100억 달러(약 13조엔)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혁신적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계획은 일본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과 수준 높은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성과를 향후 세계 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투명성 결여, 부실한 대출 조건,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된다(*Business News* May/02/2015). 아베 정부는 개도국들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오염을 감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품질'(high quality) 원조를 강조함으로써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차원의 인프라 건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Reuters* May/21/2015). 특히 아베 정부는 1,100억 달러 가운데 50%를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집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결과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관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역 아키텍처 재설계와 역내 국가 간 경제 관계의 변화는 서로 쌍방향적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성격을 가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투자와 원조를 연계하면서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현상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적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무역과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경제 질서를 수립하려는 경쟁을 시도하였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과 관련한 논의와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생산뿐 아니라, 투자, 금융, 원조 등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 작용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한 개별 영역이 독자적 중요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역 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과 생산, 생산과 투자, 투자와 원조 사이의 연계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원조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일본 역시 국내적으로 원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조·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지역 아키텍처의 재설계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략적 목표와 경제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지경학적 사고가 요청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안보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과도한 안보화와 과소 안보화 모두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안보 연계의 효과적 방법과 적절한 수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게임에 돌입하고 있다. 이 게임은 하드파워 경쟁과 소프트파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강대국 간 경쟁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게임의 최상층에서 경쟁과 제한적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소프트파워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역내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Goh 2013).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지역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지역 아키텍처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한국 외교의 과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리. 2016.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본 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5, 2: 31-62.

성균중국연구소 편저. 2016.《일대일로 다이제스트》. 서울: 다산출판사.

왕이웨이 지음. 한민화 옮김. 2016.《중국, 그래도 중국》. 서울: 서울문화사.

이승주 외. 2016.《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 서울: 명인문화사.

이재현. 2016. “일대일로에 대한 동남아의 시각: 다양성과 다중성의 전략.”《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 이승주 외, 서울: 명인문화사.

페이생. 2016. “일대일로와 지역질서.”《일대일로 다이제스트》. 성균중국연구소 편, 51-50. 서울: 다산출판사.

Asia Development Bank and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Bader, Jeffrey. 2015. “Changing China Policy: Are We in Search of Enemies?” *Brookings China Strategy Paper 1*, Massachusetts: The Brookings Institution.

Blackwell, Robert D. and Jennifer M. 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pbell, Kurt. 2016.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 The United States: Twelve.

Chen, Ian Tsung-Yen and Alan Hao Yang. 2013. “A harmonized Southeast Asia? explanatory typologies of ASEAN countries’ strategies to the rise of China.” *The Pacific Review* 26, 3: 268-288.

Chen, Ian Tsung-Yen. 2014. “Balance of payments and power: assessing China’s global and regional interdependence relationship.”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14, 2: 271-302.

Etzioni, Amitai. 2016.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 Case Study of Multifaceted Containment.” *Asian Perspective* 40: 173-196.

Foreign Assistance Data. http://beta.foreignassistance.gov.

Goh, Evelyn. 2013. *The Struggle for Order: Hegemony, Hierarchy, and Transition in Post-Cold War 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Hanemann, Thilo and Cassie Goa. 2015. “China's Global Outbound M&A in 2015.” January 4, http://rhg.com/notes/chinas-global-outbound-ma-in-2015.

Hines, R. Lincoln. 2015. “Xi Jinping’s New Foreign Polic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http://www.nbr.org/research/activity.aspx?id=516.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4. *China’s Foreign Aid*. Beijing.

Japan Times. 2015. “Japan, China compet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Asia.” January 28.

Kitano Naorhiro and Yukinori Harada. 2014. ‘Estimating China’s Foreign Aid 2001-2013.’ *JICA-RI Working Paper* 78. Tokyo: JICA Research Institute.

Lum, Thomas. 2009. *China's Assistance and Government-Sponsored Investment Activities in Africa,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he United Stat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eijer, Hugo. 2016. *Trading with the Enemy: The Making of US Export Control Policy towar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Ministry of Finance (M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2015. Announcement of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 May 2015.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President Xi Jinping Delivers Important Speech and Proposes to Build a Silk Road Economic Belt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September 2013. http://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xjpfwzysiesgjtfhshzzfh_665686/t1076334.shtml.

Mooney, Turloch. 2016. "Southeast Asian infrastructure benefits heavily from One Belt One Road." *Fairplay* June 7. http://fairplay.ihs.com/ports/article/4269726/southeast-asian-infrastructure-benefits-heavily-from-one-belt-one-road.

Nakao, Takehiko. 2015. Opening address by ADB President Takehiko entitled "Scaling-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Stronger, Better and Faster ADB." Asian Development Bank.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Commerce. 2015. 'Vision and Actions on Jointly Building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March 2015. China.

Reuters. 2015. "Japan unveils $110 billion plan to fund Asia infrastructure, eye on AIIB." May 21.

Shambough, David. 2013.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Shinzo, Abe. 2015. Addres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the Occasion of the ASEAN Business & Investment Summit. Nobember 21. Kuala Lumpur, Malaysia.

Swaine, Michael D. et al. 2015.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bea.gov/.

U.S. Foreign Assistance Data. http://beta.foreignassistance.gov.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15.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Refor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2015.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15: Supporting Participation in Value Chain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Wall Street Journal . 2016/6/22.

Wei, Lingling. 2016. "China-Led Development Bank AIIB Will be Lean, Clean and Green, Says its President."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2.

Wolf, Charles, Jr., Xiao Wong, and Eric Warner. 2013. China' Foreign Aid and Government-Sponsored Investment Activities: Scale, Content, Destinations, and Implications.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

Xinhuanet. 2015.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s." February 5.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5-02/05/c_133972101.htm.

Zhao, Hong. 2016. AIIB Portents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Financial Governance. *ISEAS Perspective* 41. Singapore: Yusof Ishak Institute.

北野尚宏. 2015. 中国の対外援助の現状. 国際協力機構(JICA) JICA研究所.

新华网. 2016. "AIIB approves half a bln USD for its first four projects in Bangladesh, Indonesia, Pakistan, Tajikistan." June 2016.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6-06/25/c_135464623.htm.

宗永健作. 2015. AIIB：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設立をめぐる動き. 三井物産戦略研究所. 5.12.

필자약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정치,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이며, 저서 및 편저로는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2010, 공저),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2008, 공저)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 위원장 : 하영선 EAI이사장)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기획실 나지원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iwonra@eai.or.kr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